

# 한예리 “미나리”, 나답게 사는 것 고민하게 해준 영화”

## 낮선 땅 미국에 온 한국 가족의 이야기

### 가족들을 지키려 하는 엄마 ‘모니카’ 역

### OST, 오스카 주제가상 예비후보...“영광”

“영화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우리들 삶과 다르지 않기에 스며들 듯 사랑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스카 유력 후보작으로 꼽히며 주목 받고 있는 영화 ‘미나리’의 배우 한예리는 “누군가의 유년 시절, 본인 또는 부모님의 이야기로 다들 조금씩 공감할 수 있다”며 “한국 관객들에게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화상으로 만난 한예리는 “선댄스 영화제에서 봤을 때도 정말 아름다운 영화라고 생각했다”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 이 영화에는 약력이 없다”며 영화가 사랑받는 이유를 꼽았다.

“어떤 약행도 없어요. 그게 사랑받는 지점인 것 같아요. 감정을 강요하지 않고 신박한 부분도 답답하게 그리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라며 넘겨요. 그런 표현 방식이 오히려 더 스며드는 것처럼 영화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 같아요.”

‘미나리’는 희망을 찾아 낯선 미국으로 떠난 한국 가족의 특별한 여정을 담았다. 영화는 한국계 미국인 정이삭(리 아이작 정)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다. 도시를 떠나 아칸소의 외딴곳으로 떠난 한국 가

족, 가족들에게 뭐가 해내는 걸 보여주고 싶은 아빠 ‘제이콥’은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농장을 개척한다.

### 단단한 모니카의 힘은 ‘사랑’...“윤여정 가까이서 보며 많이 배워”

한예리는 극 중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엄마 ‘모니카’로 분했다. 아칸소의 생활이 반갑지는 않지만, 남편을 믿어주고 병아리 감별사 일을 하며 답답하고 묵묵하게 엄마의 자리를 지켜낸다.

그는 “번역본을 처음 받았을 때, 영화와 모니카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감독님을 빨리 뵙고 싶었다”며 “감독님을 만났는데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함께 작업하고 싶었다. 감독님의 어린 시절 모습이 제 유년 시절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하고 단단한 내면의 모니카를 연기하면서 그 힘은 사랑이라고 여겼다. “모니카가 버티는 힘이 뭐냐 생각했다. 왜 제이콥을 사랑할까, 왜 그와 함께 있을까. 가족이 해체되지 않는 힘이 모니카한테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그 힘의 바탕은 사랑이에요. 모니카가 가진 사랑의 힘이 커서 가족들이 함께 있는 거라고 생각했죠. 제이콥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는 걸 지지하는 거죠. 모니카가 결국 힘들다고 말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헤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힘들다는 말이 오히려 붙잡아달라는 말로 들렸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어지는 걸 원치 않는 거죠.”

남편 제이콥 역의 스티븐 연과는 끊임없이 대화하며 자연스러운 호흡이 생겼다고 했다. “솔직하고 스위트해요. 자신은 모르는 게 많다고 스스로 없이 말하면서 편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죠. 영화가 본인의 이야기 일부를 담고 있고 열정도 많았어요. 함께하면서 저도 부족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고, 잘 해낼 수 있겠다는 에너지가 생겼죠.”

모니카의 엄마 ‘순자’로 열연한 윤여정과는 배우로서, 또 인간적으로 함께할 수 있어 기뻐했다고 했다.

“선생님이 ‘예리아,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신 차리고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배우로 갔기 때문에 허투루 캐스팅한 게 아니라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 싶어요. 잘 해내야겠다는 책임감이 들었어요. 선생님이 멋지게 해내시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인간 윤여정의 모습도 알 수 있어 너무 좋았어요.”

엄마를 위로할 줄 아는 속 깊은 큰 딸 ‘엘’ 역의 노엘 케이트 조와 장난꾸러기 귀여운 막내아들 ‘데이빗’의 엘런 김과도 다양한 케미를 선보인다. “아이들이 너무 귀여웠다. 둘 다 연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아니었지만, 낯도 가리지 않고 씩씩했다”며 “자연스럽게 모니카 엄마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다가가 줘서 고맙웠다”고 미소 지

었다.

### 한예리가 부른 OST, 오스카 주제가상 예비후보 지명...“속스럽지만 영광”

‘미나리’가 “특별한 영화”라고 했던 한예리는 “좀 더 저 자신한테 집중하게 됐다. 나답게 사는 것에 대해, 제가 어떤 사람인지 고민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영화는 많은 분들이 도와줬어요. 감독님의 지인들이 작품을 응원하고 도와주러 와서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았죠. 그들이 얼마나 이 작품과 감독님을 사랑하는지 그 힘이 제게도 왔죠. 함께 보냈던 그 시간 덕분에 제가 많이 건강해지고 영화와 작업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이 작품 자체가 저한테 특별하죠.”

정이사 감독과의 작업은 매 순간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 주어진 시간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똑똑한 감독님”이라며 “배우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해줬다. 매번 촬영이 끝나고 난 후 오늘도 무사히 잘 해냈다는 감독님의 그 따뜻한 미소가 지금 불현듯 기억난다”고 흐뭇한 미소를 보였다.

한예리가 부른 ‘미나리’의 OST ‘레인 송(Rain song)’은 제93회 아카데미상 주제가상 예비후보에 1차 지명되기도 했다.

“영화 음악들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어느 날 음악감독 에밀 모세리가 제가 불러줬으면 하는 곡이 있다고 했죠. 데이빗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듯 부르면 좋겠다고 했어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경사스러운 일까지 생겨서 신기하고 기분 좋아요. 영광스러운데, 엄청 속스러워요.”

한예리는 오스카 수상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 “감독님은 뭐라도 꼭 하나 받았으면 좋겠다. 선생님도 받으

셨으면 한다. 지금도 선물을 받고 있지만, 큰 선물이 왔으면 좋겠다”면서 “물론 지금도 충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고생한 만큼 감독님께 보람된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웃었다.

## 에이프릴 출신 이현주, 그룹 내 ‘왕따설’

### “연기 하고 싶어 탈퇴? 사실 아니다”



그룹 ‘에이프릴’ 출신 이현주가 팀 내에서 왕따를 당했다는 주장이 뒤늦게 제기됐다.

네트즌 A씨는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전(前) 에이프릴 멤버 동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주민등록등본 사진으로 이현주와 가족관계를 증명한 A씨는 “누나는 연기를 하고 싶어 에이프릴에서 탈퇴했다고 알려졌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누나는 그룹 내에서 큰 괴롭힘과 왕따를 당해왔고 그 일로 공황장애와 호흡곤란 등 많이 힘들어했다. 결국 누나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썼다.

그러나 “누나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팀을 배신해 나간 사람이 돼 너무도 듣기 힘든 악플들을 들었다. 그 후에 멤버들에게 사과를 받은 것도 없었

고, 오히려 회사를 찾아가 엄마를 보고도 그 팀의 멤버들은 비웃으며 지나갔다”고 했다.

“더 이상 이 멤버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계속 TV에 나오며 그때의 일이 저희 가족에게 떠오르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누나의 힘들어 하는 모습을 이제는 보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에이프릴 소속사는 DSP미디어는 해당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에 나섰다.

한편, 에이프릴은 지난 2015년 미니 앨범 ‘드림(Dreaming)’을 발매했다. 이현주는 2016년 10월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던 연기자의 길에 집중해야겠다는 결정을 하게 됐다”며 팀을 탈퇴했다. 2018년 KBS 2TV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에 출연, 프로젝트 그룹 ‘유니티(UNI.T)’로 활동하기도 했다.

## ‘가비엔제이’ 제니, 작곡가 김수빈과 오는 13일 결혼

### 음악으로 인연이 되어 부부의 연 맺게 돼



그룹 ‘가비엔제이’ 제니가 3월의 신부가 된다. 소속사 굿퍼라스엔터테인먼트는 지

난달 27일 “제니가 13일 작곡가 김수빈(AIMING)과 화촉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음악으로 인연이 되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다.

‘가비엔제이’ 리더 제니는 매력적인 보컬 음색과 탄탄한 가창력을 보유한 멤버로 ‘행복하듯’, ‘헤어지래요’, ‘신촌에 왔어’, ‘전 여친’ 등의 곡들로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김수빈은 엠씨더맥스 ‘처음처럼’, ‘사계(하루살이)’, 엔플라잉 ‘옥탑방’, 신용재 ‘별이 온다’, 먼데이키즈 ‘나가’, 김재환 ‘안녕못해’, 아이즈원 ‘러브 버블’, SF9 ‘맘마미야’, 임창정 ‘돌아가고 싶다’ 등 수많은 히트곡을 만든 팀 ‘에이밍(AIMING)’을 이끌고 있다.

제니는 소속사를 통해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에도 많은 축하를 보내주시는 팬들과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 이 고마움을 기억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뉴스

## 세븐틴 민규 측 “장애 학우 괴롭힘, 사실무근”

### 현재 모든 스케줄 활동 잠시 멈춰

그룹 ‘세븐틴’ 멤버 민규를 둘러싼 ‘학교폭력’(학폭) 주장에 대해 소속사 측이 “장애 학우를 괴롭혔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8일 소셜 미디어에 “수소문 끝에 (온라인에서 피해자로 적시된) 당사자의 어머니와 연락을 취했으며, 확인 결과 피해자로 적시된 장애 학우는 오히려 민규와 잘 지낸 사이였음을 확인받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플레디스는 “어머님께서 자제분을 학교에서 괴롭혔던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셔서 이 부분을 바로 확인해 주실 수 있었다”면서 “현재 당사자는 사회 생활을 잘 하고 있으며, 과거의 일이 본인의 동의 없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부당스러워하고 계신다. 그럼에도 아티스트를 위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줬다”고 설

명했다. 입장문 발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 절차가 필요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플레디스는 “피해를 받았다고 말씀하신 분들을 만나 사실을 확인하고 그 분들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사실 관계의 확인 없이 한 아티스트의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를 가볍게 결정할 수 없는 점도 이해를 부탁 드린다”면서 “물론, 사실 관계 확인 끝에 명백한 잘못이 확인되면 당사는 그에 따른 조치를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민규 본인은 이번 사안이 발생한 것만으로도 팬분들께 불편함을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힌 후, 현재 스케줄 활동을 잠시 멈추고



사실 관계 확인에 대한 모든 조치를 회사에 일임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앞서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민규의 학폭을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그러자 플레디스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후에도 추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글이 올라왔다.

## 래퍼 노엘, 이번엔 폭행 시비 연루

###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장재원 의원(국민의 힘)의 아들인 래퍼 노엘(20·장용준)이 폭행 시비에 휘말렸다.

지난달 28일 부산일보와 부산일보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노엘은 지난달 26일 부산 진구 서면 일대에서 A씨와 시비가 붙었다. 경찰은 폭행 관련 신고를 접수 받고, 수사 중이다.

영상 속에는 장용준과 그의 지인으로 보이는 여성, 그리고 남성 2명이 등장한다. 이들은 육설을 주고받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장용준과 시비가 붙은 남성 A씨는 노엘에게 “겉껍이 같은 XX가 힘쟁이가 니 힘쟁이가, 아 그래 돈 준다며 쥐”라고 소리를 쳤다.

노엘과 함께 있던 여성은 “너네

보험사기단”이라며 맞받아쳤다. 노엘도 “돈 줄게 XX”이라고 말했다.

A씨는 “노엘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과 욕설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엘은 “쌍방 폭행”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엘은 엠넷 ‘쇼미더머니6’ ‘고등래퍼’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제작년 9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노엘과 검찰 측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노엘은 같은 해 9월 전 소속사 인디고 뮤직과 전속계약을 종료했다.

## 이영지, 유재석 새 예능 ‘김백홈’ MC 합류

### 래퍼 이영지가 유재석의 KBS 새 예능 ‘김백홈’에 합류한다.

올 상반기 첫 방송되는 KBS 2TV 새 예능 ‘김백홈’ 측은 지난달 26일 이영지의 사전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당초 이영지는 유재석, 조병규와 함께 MC로 호흡을 맞출 예정이었으나 조병규가 학교폭력 논란에 휘말리면서 출연이 최종 보류된 바 있다.

사전 인터뷰 영상에서 이영지는 “유재석이 있어서 저는 더 편합니다”며 “제가 생각보다 유교적이라 막 설치지는 못하지만 스무살의 패기로 ‘막내 온탑’ 서열 뒤집기를 한 번 해보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제작진은 “이영지가 소위 ‘02년생 신인류’로 불리는 만큼 프로그램에 신선하고 유쾌한 재미를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